

# “100년 먹거리 피지컬시 수도 전북”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도내 산업계 정책 제안에  
“도정 핵심전략으로 추진”  
도지사 직속 컨트롤타워  
첨단 산업지구 조성 등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북 피지컬시 정책 전달식에서 이원택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가 피지컬시 산업을 전북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대한민국 피지컬시 수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6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북 피지컬시 정책 전달식’에 참석해 제조혁신피지컬시협회(PAMA)와 전북IT산업협회, 관련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전달받고 이를 차기 도정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의 애로 사항과 함께 전북형 피지컬시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며, 전북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 제안에는 △도지사 직속 AI·피지컬시 조직 신설 △AI·피지컬시 첨단산업지구 조성 △AI·피지컬시 진흥기관 통합 △전북인공지능전략기획위원회 발족 △차 공공기관 유치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지사 직속 ‘피지컬시 혁신본부’를 설치해 R&D 확보와 대형 연구 개발(R&D) 사업을 총괄하고, 전북대학교 실증형 주변을 ‘피지컬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개방형 혁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IT·소프트웨어와 로봇, 부품 분야 등으로 분산된 진흥기관을 통합한 전담 기관을 설립해 기업 실증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외에 14개 시·군과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등 핵심 공공기관 유치와 제조·통신 분야 실증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대표 피지컬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피지컬시는 단순히 컴퓨터 안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제조와 물류, 로봇, 농생명, 생활 서비스 등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이라며 “전북의 제조 기반과 농생명 인프라, 새만금 산업 기반이 결합된다면 전국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산업 육성 계획이 아니라 전북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국가사업과 기업 투자, 핵심 인프라를 유치해 전북이 대한민국 피지컬시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북도민에 대한 기획력과 실행력, 대외 협상력 면에서 자신이 경쟁 후보보다 강점이 있다”며 “정치 14년 동안 대부분 야당 소속으로 활동했지만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원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지방정부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민주당을 떠났다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손을 잡아주며 복당하게 됐다”며 “국민통합 위원장으로 대선에서 함께 뛰었던 인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 “대통령 이름 훔친 알박한 정치”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김관영 무소속 후보 겨냥  
“대통령과의 관계 암시하며 표 얻으려는 것은 도민 기만”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이원택이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향해 “대통령의 이름을 훔친 알박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며 전북의 미래를 놓고 정책 경쟁이 이뤄져야 할 선거권이 침착한 비방과 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변명과 착시가 아니라 진실하고 책임 있는 정치”라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를 겨냥해 “병백한 금품 제공 사실이 영상으로 공개돼 민주당에서 제명된 인물”이라며 “금품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반성은커녕 자신의 문제를 당내 갈등처럼 포장하며 도민의 눈을 가리려 했고, 이제는 대통령의 이름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제명된 인물임에도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국가사업과 기업 투자, 핵심 인프라를 유치해 전북이 대한민국 피지컬시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북도민에 대한 기획력과 실행력, 대외 협상력 면에서 자신이 경쟁 후보보다 강점이 있다”며 “정치 14년 동안 대부분 야당 소속으로 활동했지만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원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지방정부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민주당을 떠났다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손을 잡아주며 복당하게 됐다”며 “국민통합 위원장으로 대선에서 함께 뛰었던 인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

이 후보는 “대통령의 이름이 자신의 치부와 범죄를 가려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암시하며 표를 얻으려는 것은 정치적 꼼수이자 도민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북은 지금 새만금 재개발, AI 반도체, 수소산업, 농생명 바이오 등 미래 산업 전환의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 거대한 도약은 민주당 원팀만이 실현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와 국회, 민주당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진짜 민주당 원팀이 전북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며 “문자 여부 정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앙대 대변인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 내 한 언론의 여론 조사와 관련하여 이 후보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부분은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정보 유출 문제를 떠나서 설문 구조부터 답변 구조와 진행된 시간이 제한적인 점 등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 “중기·소상공 정책금융 10조 시대 열겠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후보는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만 5천여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10조원 시대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열겠다”며 “기업 부담 금리는 2.5~3.0% 수준의 저금리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전북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의 미래 비전으로 균형발전,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지금 전북이 가고 있는 방향은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현대차 투자, 피지컬 AI, 새만금 산업단지, 농생명·K푸드 산업 방산·바이오·금융도시 프로젝트 등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짜릿을 심은 사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민선 9기 핵심 비전으로 전북 성공 5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투자 성장축을 내세우며 “50조 원 투자 유치와 대기업 계열사 15건 이상 유치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 투자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성장축과 관련하여 그는 “기업 유치는 단순한 숫자 자랑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지역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이 오기 전부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전북형 퀵스타트 인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AI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기업 1,000개 육성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전북에 남을 이유”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생활 성장축과 관련하여 “성장엔 도민 삶에 체감해야 진짜 성장”이라며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전북형 반값 정책, 산후조리 지원 365일 돌봄체계, 농촌형 이동돌봄, 여성 안심귀가, 어르신 버스비 지원, 마을간 호사 확대, 장애인 자립 지원 등을 약속했다

네 번째 지역 성장축에서는 “새만금만 성장하는 전북이 아니라 14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미래 성장축으로는 RE100 산업단지, AI 메가캠퍼스, 피지컬 AI 테스트 베드, 수소산업, K푸드 수출 벨트, 자이언트 스마트팜 등을 제시하며 “새만금을 미래산업 실험장이자 세

중과 원칙 없이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이번 공천은 이미 특정 세력 중심의 사천으로 의심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민의 뜻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도민이 선택한 현직 도지사에게 초고속 제명 절차로 잘라낸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최근 민주당 중앙당이 김관영 후보를 돕는 당원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감찰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북 민주당원 상당수가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택을 선거구에서 발생한 유사 사안과 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고 관용을 베풀던 지도부가 왜 유독 전북에만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

#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전북 성공 5대 프로젝트 추진”

계로 나가는 전북의 관문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집의응답에서는 무소속 출마와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김 후보는 “도지사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행정가이며, 중앙부처·정차권과 협력해 도민 삶의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자리”라며 “무소속 도지사가 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민에 대한 기획력과 실행력, 대외 협상력 면에서 자신이 경쟁 후보보다 강점이 있다”며 “정치 14년 동안 대부분 야당 소속으로 활동했지만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원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지방정부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6년 민주당을 떠났다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손을 잡아주며 복당하게 됐다”며 “국민통합 위원장으로 대선에서 함께 뛰었던 인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 “대통령 기망? 명백한 범죄!”

익산청년정치참여연대  
김관영 도지사 후보 겨냥

익산청년정치참여연대(대표 이완희) 소속 회원 4명은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전북도지사 김관영 후보에 대해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완희 대표가 이날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김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와 온라인 방송 등에서 “무소속 출마 과정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익산청년정치참여연대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 확인 결과 김 후보 주장과 같은 소문 사실이 없으며 입장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으며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치 지도자와의 관계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익산청년정치참여연대 회원들이 “대통령 기망! 명백한 범죄!!”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공식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도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전북도민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사법당국은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청년정치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직후 전북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 측은 관련 자료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해 공식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전북은 중앙정치의 하수인 아니다”

민주 전북 권당 31명·도의원들, 김관영 후보 지지 선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인 김명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경수 도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31명은 2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 중앙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당당한 선택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중앙지도부의 표적 감찰과 징계, 협박 등 오만과 독선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민주당 강령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과 국민주권

정치가 사실상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문 낭독에 나선 김경수 의원은 “전북 도민들은 민주당이 풍찬노숙하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을 돌리지 않고 압도적인 지지와 신뢰로 당을 지켜왔다”며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는 민주주의 정신과 서민·중산층을 대변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선거에 활용해 대통령의 지지나 승인을 받은 행위”라고 비판했다